

현안과 과제

■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 對중국 수출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 중국, 수입 증가세 둔화 지속

최근 4년간 중국은 주요 수입대상국인 한국, 미국, 일본, 독일로부터의 수입증가율 감소폭이 20~30%p를 보이면서 중국 전체 수입증가율이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 및 중국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입정책의 변화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對中 수출구조 변화

중국의 수입정책은 무역 부가가치 제고, 산업구조조정, 신산업육성, 내수진작 등을 꾀하기 위해 저부가가치 상품수입을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특정 품목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입확대 조치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對中 가공무역 수출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을 금지 및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공무역을 본격 제한하고 있으며, 2014년 가공무역정책 개정안에서는 총 1,871개의 가공무역금지 품목을 확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0년 41.1%에서 2014년 26.8%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은 2014년 기준으로 규모와 비중 면에서 중국의 기타 주요 수입대상국보다 모두 높은 수준이지만,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완만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중국은 반제품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구조도 반제품 중심에서 부품부분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0~2013년 사이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64.4%에서 49.7%로 감소하였고, 특히 중간재 중에서도 반제품의 수입비중이 16.0%p나 감소하였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는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조치와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등 산업구조고도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기간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반제품 수출비중이 66.2%에서 33.3%로 대폭 감소한 반면, 운송장비부품, 기계/전자부품 등 부품부분품의 수출비중이 21.2%에서 44.9%로 증가하였다. 중국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부품부분품 시장점유율도 9.0%에서 17.3%로 증가하였다. **셋째, 중국은 내수육성을 위한 소비재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對**

중국 소비재 시장 침투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최종재 부문의 자본재와 소비재 가운데서, 중국은 장비산업 육성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철강, 화학 등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자본재 수입 비중이 2000~2013년 사이 17.7%에서 13.9%로 감소하였고 소득증가 및 수요다양화에 따른 소비재의 수입비중은 동기간 4.3%에서 7.5%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2000~2013년 사이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전체 對중국 수출의 25%에서 소폭 증가한 3.6%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소비시장 확대 및 고급화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감소, 중간재 수입 감소 등 정책에 대한 대응이 다소 개선된 반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소비재 시장 침투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중국 수입구조 변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 >



■ 시사점

중국의 수입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업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소셜커머스, 해외직구망 등 수출기업들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적극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역동성과 혁신역량을 키워야 한다. **셋째,**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등과 같은 금융지원체제를 확대 마련하고 對중국 진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 **넷째,** 한중FTA 등 대외개방 트렌드에 맞춰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해 수출 부가가치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중국의 소비재 시장은 물론, 의료, 에너지, 인프라 및 공공부문 등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분야를 다각화 할 필요성도 있다.

1. 중국, 수입 증가세 둔화 지속

○ 최근 4년간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 대한 중국의 수입 증가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중국 전체 수입 증가율이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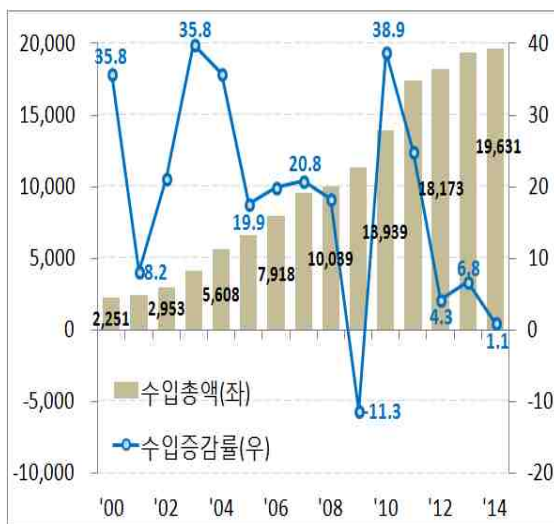
- 최근 중국 수입증가율이 4년 연속 감소

- 지난 2000~2008년 사이 중국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23.6% 기록, 글로벌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수입 증가세가 회복되어 전년대비 38.9% 증가한 1조 3,939억 달러 기록
- 그러나 그 뒤로 2011~2014년 사이 수입 증가율은 각각 24.9%에서 1.1%로 4년간 추세적으로 급격히 감소 추세
- 2014년에는 수입 총액이 사상 최대치인 1조 9,63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1.1%에 그침

- 중국의 주요 수입파트너 국가인 한국, 미국, 일본, 독일로부터의 수입증가율도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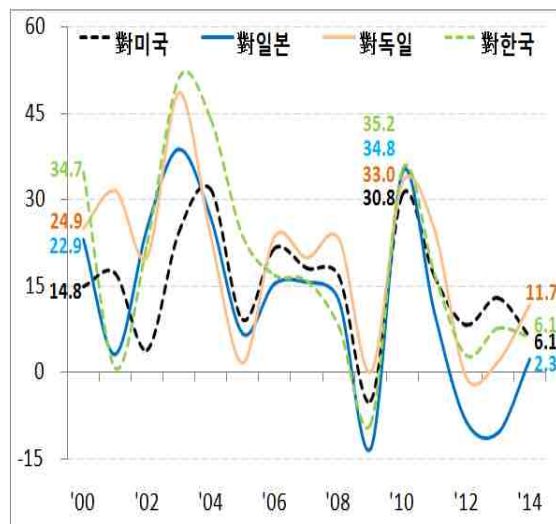
- 2010~2014년 사이 중국이 한국, 미국, 일본, 독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각각 35.2%에서 6.1%, 30.8%에서 6.1%, 34.8%에서 2.3%, 33.0%에서 11.7%로 하락

< 중국의 수입총액 및 증가율 >
(억 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국의 對주요수입국 수입증가율 추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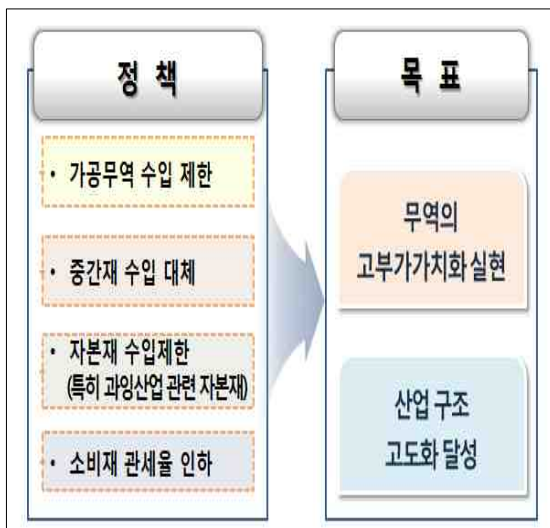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對中 수출구조 변화

1) 중국 수입정책의 변화

- 중국은 무역 부가가치 제고, 산업구조조정, 신산업육성, 내수진작 등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 정책을 실시
 - 저부가가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특정 품목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입확대 조치를 병행
 - 가공무역 수입 제한을 통해 저부가가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을 억제
 - 또한,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수입 촉진
 - 가공무역¹⁾의 수입품목을 제한하는 등 정책을 꾸준히 개정하여 추진
 - 중국은 1980~1990년대 가공무역을 꾸준히 장려해 오다가 1999년에 처음으로 가공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출시
 - 2000년대에 들어서 가공무역을 본격 제한하면서 수입 및 수출금지 품목수를 꾸준히 확대, 2014년 개정안에서는 1,871개의 가공무역금지 수출입 품목을 지정

< 중국 수입정책 변화와 목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중국 가공무역 금지·제한 정책 >

연도	주요 내용
1999	· 가공무역 관련 제품을 허용, 제한, 금지 등 3분류로 나누어 관리 시작
2004	· 비료, 중고 기계, 중고전자제품 등 금지품목 341개로 지정
2006	· 희토류, 철광석, 원목, 철합금광 등 금지품목 804개로 지정
2007	· 강철관, 철파이프, 농약, 가죽제품 등 금지품목 1,140개로 지정
2008	· 광산품, 화공품, 철강제품, 식음료 등 금지품목 1,816개로 지정
2009	· 금지품목 1,759개로 지정
2010	· 금지품목 1,803개로 지정
2014	· 금지품목 1,871개로 지정

자료 : 연도별 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录.

1) 가공무역이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원재료 및 보조재료, 부속품, 소재, 부품, 포장물품 등을 국내기업이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활동을 말함.

- 동시에 매년 '관세 실시방안(關稅實施方案)'을 통해 소비재 등 제품의 관세를 인하
 - 관세 인하 조치는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신산업육성, 내수진작 등을 위한 것임
 - 중국재정부(中國財政部)가 매년 700여개의 수입관세 인하 품목을 특별 지정, 잠정관세율을 평균관세율 9.8%보다 낮은 4.4% 수준으로 책정
 - 관세인하 해당 품목에는 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 등 소비재, 신산업 관련 제품들이 포함

- 수입 관세율 인하는 신산업 관련 부품(중간재), 장비(자본재) 등으로, 기존의 저부가가치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을 상대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중국은 신산업 관련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 관세율 인하를 통해 기존의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입을 상대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고도화 모색
 - 올해 2015년에도 에너지절감제품, 신홍산업 관련 부품, 소비재 등 749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4.4%로 낮게 설정

< 중국 수입관세 인하 주요내용 >

연도	주요내용
2001~2009년	·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 평균 관세율을 15.3% → 9.8%로 단계적 하향조정 - 10개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2006년 143개, 2009년 673개 품목 수입관세 잠정 인하
2010년	· 관세세율 조정대상 품목수는 적고, 세율인하폭은 작음 · 전체 품목 평균적용세율 9.8%
2011년	· 637개 품목 수입관세 잠정 인하 ※ 정유설비, 대형선박장비, 천연가스운송설비 및 그 부품, 자재 등 · 전체 품목 평균적용세율 9.8%
2012년	· 730개 품목 수입관세 잠정 인하 - 해당 품목 평균 잠정관세율 4.4%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 에너지 원자재, 핵심부품 등 · '수입통제·수출확대(嚴進寬出)' 정책시대 폐막
2013년	· 784개 품목 수입관세 잠정 인하 - 해당 품목 평균 잠정관세율 4.4% ※ 소비재, 친환경 제품, 신홍산업 관련 원부자재, 자동차용 공조기/유압엔진 등 · 내수진작, 신홍산업 육성, 무역수지불균형 해소 등 목적
2014년	· 760개 품목 수입관세 잠정 인하 - 해당 품목 평균 잠정관세율 4.4% ※ 일부 소비재, 신홍산업 관련 부품, 원자재 등
2015년	· 749개 품목 수입관세 잠정 인하 - 해당 품목 평균 잠정관세율 4.4% ※ 소비품, 의약품, 신홍산업 관련 설비, 부품연료, 에너지절감/오염물질배출 감축 설비 등

자료 : 中國國務院, 中國財政部, 연도별 '關稅實施方案'.

2)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 (가공무역 수입 감소)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²⁾을 금지·제한하는 정책을 지속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임

- 최근 중국 가공무역 수입의 증가속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가공무역 수입 증가율은 2000~2007년 사이 평균 22.8%에서 2008~2014년 사이 5.9%로 대폭 감소
- 가공무역 수입 총액은 2014년 기준 5,260억 달러 기록

- 가공무역 수입 증가세 둔화에 따라 그 비중도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

-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액 규모는 1997년에 703억 달러를 기록,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인 49.4% 기록
- 가공무역 수입액 비중이 2006년 40.6%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
- 2014년 현재 가공무역 수입규모는 5,260억 달러로, 비중은 26.8%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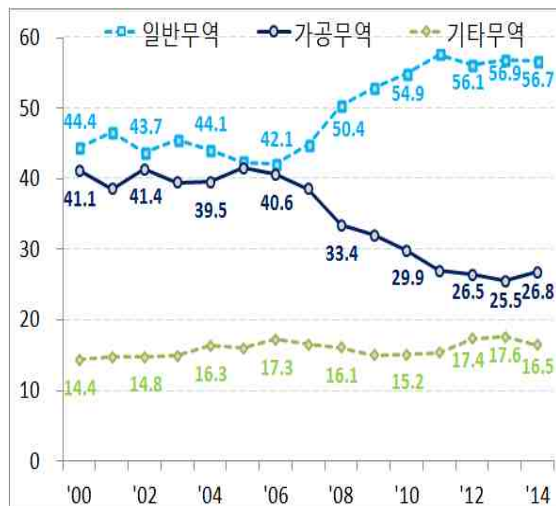
< 중국 가공무역 수입 추이 >
(%)



자료 : 中國海關總署.

주 : 분류 기준은 [부록 1] 참고.

< 중국 수입총액 중 가공무역의 비중 >
(%)



자료 : 中國海關總署.

2) 가공무역이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원재료 및 보조재료, 부속품, 소재, 부품, 포장물품 등을 국내기업이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활동을 말함.

- 한편,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은 중국의 기타 주요 수입대상국보다 높은 수준임
 -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은 규모와 비중 면에서 대만, 일본, 미국 등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보다 모두 높은 수준임
 - 특히,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인 미국의 對중국 가공무역비중 15.7%보다 36.2%p 높음
 - 또한, 중국시장에서 경쟁대상인 대만, 일본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액보다 각각 30%, 78% 많음
-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감소하고는 있으나, 2014년 기준 전체 對중국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50% 상회
 -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전체 對중국 수출액의 54.2%인 554억 달러 기록
 - 그 뒤로 가공무역 수출비중이 꾸준히 감소, 2011~2013년 3년간 50% 이하로 하락
 - 그러나 지난 2014년에는 51.9%를 기록하면서 다시 50%대 기록, 전체 가공무역수출액도 사상 최대치인 988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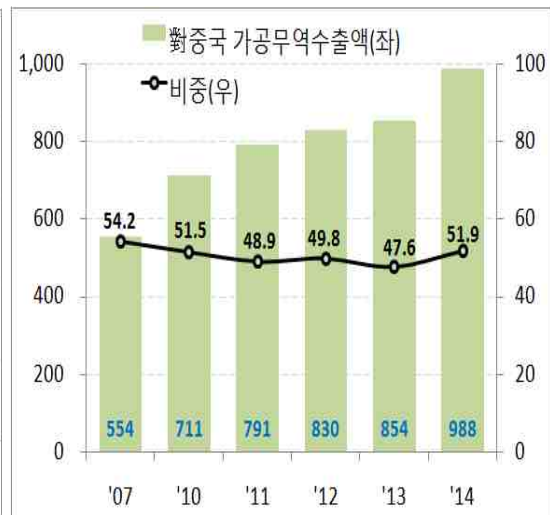
< 주요국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2014년) >
(억 달러)



자료 : 中國海關總署, 한국무역협회.

1. ()는 국가별 對중국 수출중 가공무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홍콩은 2013년 기준임.

< 한국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 추이 >
(억 달러) (%)



자료 : 中國海關總署, 한국무역협회.

주 : 2008, 2009년 관련 DATA 부재.

- (중간재 수입 감소) 중국은 중간재의 수입대체, 즉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 정책에 따라 반제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도 반제품 중심에서 부품부분품으로 전환
 - 중국의 차이나 인사이드 정책에 따라 최근 중간재 수입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임
 - 중국의 전체 중간재 수입은 2000~2013년 사이 1,439억 달러에서 9,173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연간 수입증가율은 감소 추세
 - 특히, 2000~2007년 사이 중간재 수입 증가율은 평균 22.5%였지만 최근 2008~2013년 사이에는 평균 9.6%로 감소
 - 이에 따라, 반제품 중심의 중간재 수입 비중도 빠르게 감소
 - 2000~2013년 사이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64.4%에서 49.7%로 대폭 감소, 특히 중간재 중에서도 반제품 수입비중이 동기간 40.0%에서 24.0%로 16.0%p 감소
 -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는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조치와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등 산업구조고도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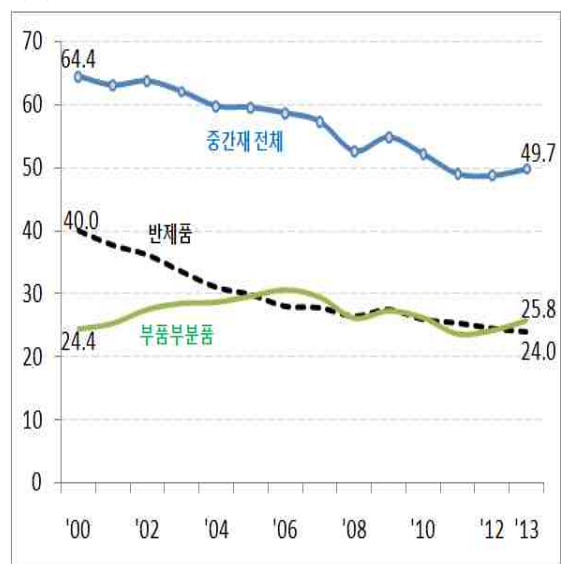
< 중국의 중간재 수입액 추이 >
(억 달러) (%)



자료 : UN Comtrade.

주 : 분류 기준은 [부록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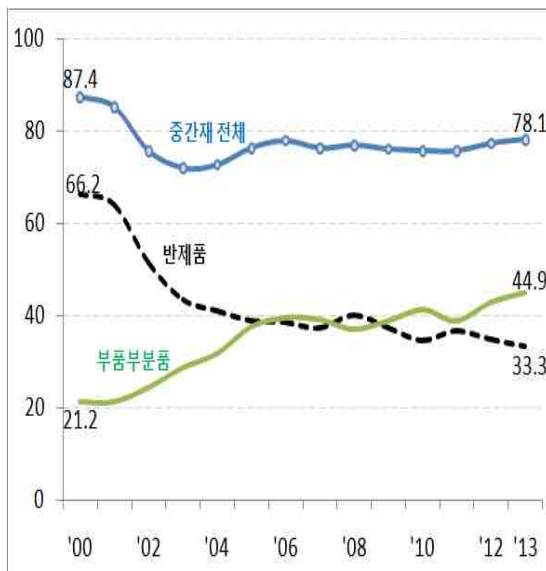
<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
(%) (%)



자료 :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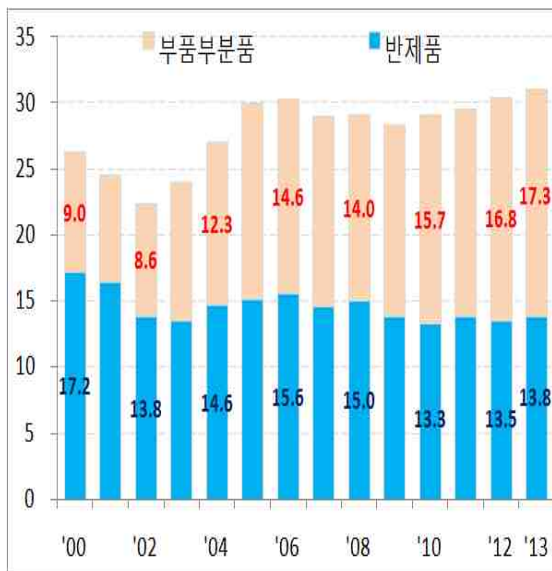
- 한편, 한국은 對중국 수출에서 부품부분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간재 수출비중이 70%대의 높은 수준 유지
 - 2000~2013년 사이, 한국의 對중국 반제품 수출비중은 32.9%p 감소, 부품부분품 수출비중은 23.6%p 증가
 - 이에 따라 전체 對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은 87.4%에서 78.1%로 9.3%p 감소
 - 이는 운송장비부품 등 부품부분품의 對중국 수출 비중이 다소 증가한 가운데 가공무역과의 연관성이 높은 반제품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 중간재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부품부분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00~2013년 사이 중국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점유율은 부품부분품이 9.0%에서 17.3%로 증가하는 등 부품부분품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동기간 반제품의 시장점유율은 3.4%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0%이상의 수준 유지

< 한국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 > (%)



자료 : UN Comtrade.
주 : 분류 기준은 [부록 2] 참고.

< 중국 중간재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 (%)



자료 : UN Comtrade.

○ (자본재 수입 감소, 소비재 수입확대) 중국은 제조업 육성,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자본재 수입 감소, 소득증가 및 수요다양화에 따른 소비재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對중국 자본재 시장점유율은 증가, 소비재는 감소 추세

- 중국 최종재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00~2013년 사이 중국 최종재 수입액은 490억 달러에서 3,944억 달러로, 연평균 17.4%씩 증가
- 최종재 수입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비중이 큰 자본재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장비산업 육성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철강, 화학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자본재 수입 비중이 축소되었지만, 소득증가 및 수요다양화에 따른 소비재의 수입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2000~2013년 사이 최종재 가운데서 자본재 비중이 17.7%에서 13.9%로 감소, 이는 중국의 기계장비 제조능력의 향상과 과잉생산 분야의 설비퇴출 등으로 인해 기계장비, 전기장치 등 생산수단 수입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임
- 반면, 동기간 소비재 수입비중은 4.3%에서 7.5%로 증가

< 중국의 최종재 수입액 추이 >
(억 달러) (%)



자료 : UN Comtrade.

주 : 분류 기준은 [부록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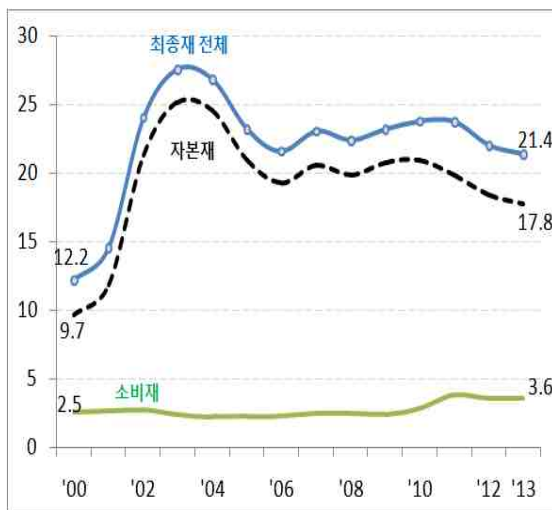
< 중국의 최종재 수입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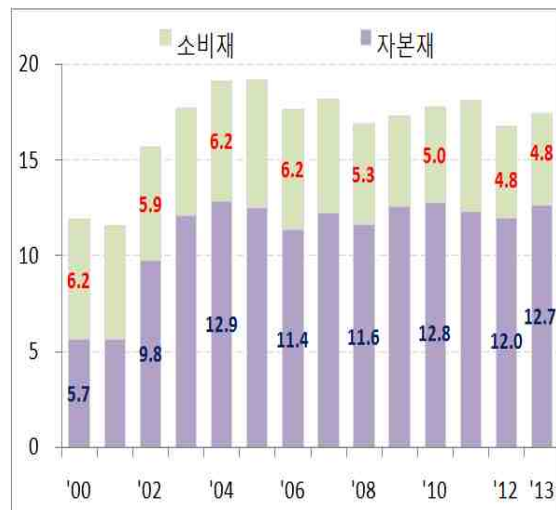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 반면,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소비시장 확대 및 고급화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기계, 전기장비 등 자본재 수출비중은 전체 對중국 수출의 9.7% 기록
 - 2003년 25.2% 기록 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기준 17.8%를 기록
 - 반면, 동기간 對중국 소비재 수출비중은 전체 對중국 수출의 2.5%에서 소폭 증가한 3.6%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그침
 - 이는 중국의 소비재 시장 확대, 고급화 흐름 등에 못 따라가고 있음을 의미
- 우리나라가 중국의 소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하락, 자본재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를 보임
 -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재 수입 증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對중국 소비재 시장 점유율은 2000년 6.2%에서 2013년 4.8%로 감소
 - 반면, 중국이 수입을 줄이고 있는 자본재 부문에서는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5.7%에서 12.7%로 증가
 - 우리나라의 對중국 최종재 수출구조가 중국의 최종재 수입 구조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對중국 최종재 수출 비중 > (%)



< 중국 최종재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 (%)



자료 : UN Comtrade.

주 : 분류 기준은 [부록 2] 참고.

자료 : UN Comtrade.

3) 종합평가

- 중국은 가공무역 수입을 축소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비 중도 다소 감소
 - 우리나라는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에서 기타 국가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중국은 자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중간재 수입 대체를 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해 반제품 수출 중심에서 부품부분품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조립용 반제품 수출에서 운송장비 부품, 기계/전자부품 등 부품부분품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간재 중심의 對중국 수출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對중국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의 한계가 확대될 우려 상존
- 최종재 부문에서는 중국의 기술추격에 따른 對중국 수출한계, 소비시장 침투 미흡 등 한계에 놓여 있음
 -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본재를 생산하는 능력을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입지에 대한 위협 가중
 -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한 침투성고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수입구조 변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 >



3. 시사점

- 중국의 수입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 첫째,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선도기업과 국내 소재부품기업간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해외 완성업체와의 기술협력, 구매 등 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 특히, 그동안 중국 가공무역체도로 인해 對중국 교역에서 실효관세율이 매우 낮게 적용되어 왔으나 가공무역 금지 확대에 따라 관세 및 증치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 수요에 기반을 둔 우리기업들의 제품개발, 사업화, 마케팅 협업파트너십 구축이 필요
 - 둘째, 수출기업들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적극 구축하고 수출기업의 소프트 파워를 적극 키워야 함
 - 소셜커머스, 해외직접구매를 이용하는 중국 소비자 수요에 맞춰 판매채널을 다각화 하고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서비스 지원도 강화
 - 또한, 대기업 제품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중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등 유통망 다양화
 - IT융합 사업영역을 발굴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기업 스마트화, 소프트화를 통해 산업 혁신역량 적극 개발
 - 셋째,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제를 적극 마련하고 對중국 진출 시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해외진출과 관련된 효과적인 금융지원체제 적극 활용
 -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물류, 결제애로 해소, 전자상거래 무역의 수출·세무 신고제도 등을 적극 개선

- 넷째, 한중 FTA등 대외 개방에 맞춰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확대 조치, 경쟁국인 대만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은 對중국 교역에서 상대적인 관세 부담 증가로 작용하는 바, 한중 FTA의 발효 필요성 증대
 -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해소 등 종합지원 강화하여 한중 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
 - 특히, 현재 중국의 5대 수입 대상국(한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중 FTA가 발효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한 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가격 이점 제고, 투자환경 개선,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적극 모색

- 다섯째,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및 공공부문에 진출하는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 분야 다양화 적극 모색
 - 신재생에너지 분야,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문 등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분야를 다양화

경제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부록 1】 중국 가공무역의 분류 기준

- 중국의 가공무역은 크게 내료가공(來料加工: Processing and Assembling Trade with Customer-supplied Materials)과 진료가공(進料加工: Processing Trade with Imported Materials), 출료가공(出料加工: Processing Trade with Expored Materials)으로 분류
 - 내료가공 : 외국기업이 중국 가공무역기업에게 무상으로 재료를 제공하고, 중국기업이 가공 및 조립과정을 거친 후 완/반제품을 수출하여 임가공비만 수취하는 형태
 - 진료가공 : 중국 가공무역기업이 해외에서 재료를 직접 조달하여 가공 및 조립한 뒤 완/반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
 - 출료가공 : 중국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단계 중 일부 기술이 없어서 해외의 다른 기업에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한 뒤 다시 수입하여 완/반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

< 중국의 가공무역 분류 기준 >

통계 코드	화 물 무역 방식	구 분	
00	전체 교역 화물	--	
10	일반무역 화물 (一般貿易)	일반 무역	
11	무상지원 및 증정 화물 (國家間、國際組織无償援助和贈送的物資)	기타 무역	
12	기타 증정 화물 (其他捐贈物資)		
13	보상무역 화물 (補償貿易)	내료가공	가공무역
14	내료가공조립무역 화물 (來料加工裝配貿易)		
15	진료가공무역 화물 (進料加工貿易)	진료가공	
16	위탁대리판매무역 화물 (寄售代銷貿易)	기타 무역	
19	국경소액무역 화물 (邊境小額貿易)		
20	가공무역수입설비 (加工貿易進口設備)		
22	외주하청 및 노무청부 계약 수출 화물 (對外承包工程出口貨物)		
23	임대무역 화물 (租賃貿易)		
25	외자기업투자설비 화물 (外商投資企業作爲投資進口的設備、物品)		
27	출료가공무역 화물 (出料加工貿易)		
30	역화무역 화물 (易貨貿易)	기타 무역	
31	면세외환화물 (免稅外匯商品)		
33	보세창고출입국 화물 (保稅監管場所進出境貨物)		
34	보세창고보관통과 화물 (海關特殊監管區域物流貨物)		
35	수출가공구수입 설비 (海關特殊監管區域進口設備)		
39	기타 화물 (其它商品貿易方式)		
41	면세품 (免稅品)		

자료: 中國海關統計諮詢網 www.chinacustomsstat.com/asp/1/self_search/psearch.asp?page=1&t=4&State=2&next=4

【부록 2】 가공단계별 무역의 분류 기준

-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가공단계별 진출 현황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 품목들을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함

- 가공단계는 3단계 기준으로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로 구분
- 5단계 기준으로는 원자재, 반제품, 부품부분품,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함

※ HS 6단위 코드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중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HS코드와 연계하지 않음.

< 가공단계별 분류 기준 >

3단계 기준	5단계 기준	BEC 코드	BEC 품목명
원자재(소재, 1차제품)		111	산업용 식음료품
		21	산업용 원자재
		31	연료 및 운할유
중간재	반제품	12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2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21	자동차 차체
		322	가공된 연료 및 운할유
	부품부분품	42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
		53	운송 장비의 것
최종재	자본재	41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521	산업용 운송장비
	소비재	112	가정용 식음료 제품
		122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51	승객용 자동차
		52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61	내구성 소비재
		62	반내구성 소비재
		63	비내구성 소비재

자료 : Gaulier, Lemoine and Unal-Kesencii(2004), p51.